

공동체 소식

▣ 위령성월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부모, 친지, 은인)을 위해 미사 봉헌하시고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낙태 반대 서명운동

- 본당입구 게시판에 준비된 카드를 작성하여 총무에게 주시면 모아서 발송합니다.

▣ 전례부 회합

- 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교무금 안내

매월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추가로 한 달분이상 교무금을 감사헌금으로 봉헌해 주십시오. 추가로 감사헌금 봉헌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1월 2차헌금 안내

- **10일(일)** 해외파견 한국선교사 및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후원
- **17일(일)** Collection for the Archdiocese for the Military Services 군 사목을 위한 대교구 모금
- **24일(일)**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CCHD) 인간개발을 위한 가톨릭 캠페인

▣ 구역모임/반장모임안내

- 1구역 09일(토) 저녁7시** 박옥희 헬레나 가정 구역반장모임 **1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2구역 15일(금) 저녁7시** 김태중 예레미야 가정
- 3구역 22일(금) 저녁7시30분** 문석찬 요셉 가정
- 4구역 2반 22일(금) 저녁7시** 김지섭 토마스aq. 가정
- 4구역 1반 23일(토) 오후4시30분** 박민 바실리오 가정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또한 중앙통로는 전례때에 주로 사용합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목	성 체	파 건
금 주	49	210	155	436
차 주	29	220	167	423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대연(요셉)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차 주	최은미(아네스)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지안(요한) 김정훈(로베르도)
차 주	정예찬(미카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베네딕도), 이우영(가브리엘)
차 주	홍순익(마르티노), 강승호(아오스딩)

▣ 애찬 봉사자

금 주	9조: 김시연, 김명희, 윤지선
차 주	1조: 조지연, 박정자, 김경돌, 정연숙, 이경남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3일 3구역)**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을 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31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선행의 의지를 키워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을 우리 집에 모시며, 땅과 하늘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그림 묵상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 8-10

제 1 독 서 : 지혜서 11,22—12,2

<주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므로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십니다.>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2서 1,11—2,2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19,1-10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생명의 말씀

“주님,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지혜 11,24 참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위령성월이 되면 누구나 한 해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네 삶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묵상하게 되고, 먼저 가신 가족, 친지, 은인들의 안식을 기도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오늘 11월의 첫 주일에 맞는 연중 31주일 복음은 루카 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과 자캐오라는 세관장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 마지막 단계에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점의 사건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고 수난받으실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캐오는 세관장이요 부자라고 루카 복음사가는 말합니다. 사실 세관장이라는 직책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하수인' 정도로 여겨져서 배척받는 자리였습니다. 종종 거두어들여야 하는 세금 이상으로 거두어들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자캐오가 예수님이 예리코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 작은 세관장이었던 자캐오에게 단지 작은 키만 문제였다면,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 앞줄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도 있었을 터이지만, 많은 사람들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따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모습이 자캐오의 외로운 처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제국의 하수인'이자 부정직한 세리이고 외로운 처지이기에 더더욱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서도 외로운 한 존재의 갈망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군중에서 떨어져서 나무 위에 외롭게 올라있는 애타는 눈망울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자캐오야, 내려오너라!" 예리코의 한 세관장 이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리 아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어~이, 거기, 나무 위의 사람, 한 번 내려와 보시게' 정도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캐오 같은 죄인이요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를 '있는 그대로, 한 인격으로 사랑하고 계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독서에서 지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와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 당신

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한 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을 받았지만, 돌아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빈손'을 느끼는 우리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캐오야, 오만과 외로움의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만나며, 우리도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바쳐드립니다.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그대 살아오며 따스한 눈빛, 부드러운 시선을 받은 적 있었을까
한 번의 식사가 그대에게 위로와 치유가 될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그대에게
따스한 눈빛
부드러운 시선을 선물하고 싶소.

그대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알기에.
그대도 사랑받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9-10)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삶과 죽음

지난해 여름, cpbc 창작생활성가제를 통해 연을 맺어 20년 동안 친교를 나누던 친구를 잃었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6월엔 꼭 보자던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영정사진 속의 친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도 믿기지 않아 세상이 멈춰버린 듯했습니다. 나눠야 할 이야기도, 계획했던 일도, 위로해주고 싶던 친구의 상처 난 마음도 그 사진 안에 가둔 채, 하루하루 친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1주기를 맞아 생활성가를 함께하는 동료 선후배들과 추모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우리 곁을 떠난 친구가 주님 품에 들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추모음악회를 통해서 그녀가 살아냈던 삶의 값진 유산들을 살피며 그녀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은사를 정확히 발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았고, 유작 음반을 통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녀가 썼던 가사를 통해서 그녀의 생각이, 그녀의 노래 틈 속에 그녀의 숨결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없는 친구를 통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체험했습니다. 덧없음과 두려움, 연민과 아픔, 돌아봄과 깨달음이 내가 되고 친구가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 또한 부여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합니다. '요셉이나,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니, 아니면 죽어가고 있니?' 친구의 죽음을 통해 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

는가, 혹은 죽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어릴 땐 40대가 되면 완벽한 어른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모든 일에 정답을 알고 옳은 결정을 하는 어른. 그런데 마흔다섯이 된 지금도 온전한 인간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행했던 옳은 결정이 모두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과 행동은 이미 나를 앞질러 가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내가 주는 선물이 되기도, 아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옳은 방향을 선택해서 살고 있다 자부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또는 세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행동이 죽어가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선택이길 간절히 바라고 청하면서, 무엇이 사람의 욕심인지 무엇이 사람의 희망인지 그 차이를 분별하길 청하렵니다. 죽은 친구가 내 안에 살고 있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듯 그 죽지 않는 생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훗날 우리 곁을 떠나 먼저 주님 품에 있을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가다, 나 잘 살다가 온 거 맞지?" 하얀 이가 모두 드러나도록 빛나게 웃으며 맞장구쳐줄 그 친구 얼굴이 오늘 참 많이 그리웁니다.

나혜선 요셉피나 | 성가 가수, 금속공예가

복음묵상

